

레슬리 앨런 박사, 애도, 세션 1, 소개, 1부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애도에 관한 동영상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7과 11,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 그 역할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2001년 세계 무역 센터 타워가 파괴된 끔찍한 날의 기념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고대 유대 역사에 일종의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가의 전부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달력에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 보면 5월 9일입니다. 현재의 유대 달력을 보면 올해 7월 22일 일요일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나가면 문이 열리고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7-11에 대응하는 일종의 기념일인 5-9입니다. 그 날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군대의 손에 18개월 동안의 포위 공격 끝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 성전이 파괴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념일은 그 비극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에서 우리는 두 번째 성전이 서기 70년에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월 9일인 이 성일은 두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대 성도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애도는 그 기념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애가를 낭독할 정도로 가까워서 읽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유대인 신자들에게도 계속 남아 있는데,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종종 무시됩니다. 한번은 제가 애도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교회의 한 여성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나는 말했다, 애가. 아, 그 사람은 '난 그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정말 끔찍한 책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멍청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는 '그렇다, 그것은 끔찍한 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끔찍한 시기를 위한 책이고 때로는 끔찍한 시기를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에게 애가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이 책은 정기적으로 읽혀지는 책이 아니라 기독교계에서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책입니다. 그리고 3장에는 주의 신실하심이 크도다라는 유명한 찬송의 기초로 알려진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애도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침묵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교회와 회당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애도는 그 자체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두 비디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 애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가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 맥락이 무엇인지, 문학적 맥락, 역사적 맥락이 무엇인지, 역사의 특정 시기에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애가가 활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전통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애도는 그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성경의 정경에서 애가의 위치가 어디인지 묻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의 기독교 정경보다 앞섰기 때문에 대답하기보다 질문하기가 더

쉽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의외의 장소에서 애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이 율법서, 선지자서, 기록서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글 중간에는 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명의 동료도 있습니다. 그 글에는 다섯 권의 두루마리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룯기,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은 축제 때나 축일에 모두 사용하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다음으로 이 마지막 부분에 넣을 자연스러운 분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룯기는 칠칠절에 낭독되었고, 아가는 유월절에 낭독되었고,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낭독되었으며, 애가는 5월 9일 이 거룩한 날에 낭독되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대답입니다. 이것이 정경에서 애가의 위치에 대한 유대인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정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엄청난 재편이 있었고 어떻게든 구약과 신약을 통합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맨 마지막에 두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앞을 내다보고, 신약성경은 뒤를 돌아봅니다. 적절하게도 마태복음은 첫 번째 책이자 첫 번째 복음서로 꼽히는 이유는 마태복음이 너무 자주 구약성경을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구약과 신약 사이에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때와 교회의 때를 고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저서로는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여기 저기 적당한 장소로 선지자들 앞에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가를 썼다는 고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가는 예레미야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에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익명이므로 우리는 그 익명성을 존중해야 하며 히브리서가 바울의 편지라고 불리는 흠정역 성경에서처럼 저자에게 강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가정이었습시다. 그러나 애가는 선지자들의 중간에 위치하며 그것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애가가 끌어내는 전통 중 하나가 예언적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적 전통은 애가를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며 그들의 고통을 설명하는 데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가의 정식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애가와 정경에 있는 다른 두 권의 책 사이의 관계.

애가는 신명기 28장을 기반으로 하며, 애가에는 신명기 28장이 인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 3절에서는 쉴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신명기 28장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65절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애가 5장은 문자 그대로 머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가 머리가 되는 것은 신명기 28장과 44절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가 1장의 5절 끝 부분은 포로가 되어 가는 포로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신명기 28장 41절과 같습니다. 애가 2.20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처의 열매를 먹는 것은 신명기 28장 5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포착될 단서가 될 것입니다. 애가와 관련된 첫 번째 예배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참조를 강화하는 신명기 28장 낭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의 구절들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 언약의 토라에 대한 불순종을 말하는 부분에서 따왔기 때문에 해석이 있다는 뜻이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형벌이 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택되고 단서가 됩니다. 단서입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황 그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신성한 인간 상황이 관련되어 있고 의미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서에는 의도적으로 애가를

반영하고 이를 뒤집어서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가 4장 15절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하는 난민 유배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말하기를 떠나라 너희는 부정하니 떠나라 그들을 만지지 말라 그들도 부정하니라 그리고 이사야 52장 11절에서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바벨론에서 떠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전이 있습니다. 단어가 선택되었지만 이제는 반전되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으로 변합니다. 애가 4.17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대해 읽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맥락에 있습니다. 구원의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2장 8절은 당신의 관찰자들과 눈을 마주하며 무언가를 보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시온으로 돌아오셨고 그들을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제2이사야라고 부르는 이사야서의 그 부분은 포로기의 유배 기간에 속하며 애가 이후에 기록되었으며, 애가에 있는 나쁜 소식인 좋은 소식을 선택하고 뒤집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애가 1장은 시온에는 위로자도 없고 위로자도 없다고 거듭해서 말합니다. 제2이사야서에는 이사야 49장과 이사야 51장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정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봅니다. 애가는 모르지만 암묵적으로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째 이사야의 눈을 통해 그 비극의 역전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 정경에서 애가의 위치에 관한 몇 가지 단어입니다. 이제 역사상 애가의 위치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왜 베를린은 1945년에 함락되었습니까? 간단한 답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독일 측에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던 선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19세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독일의 역사와 결국 역사의 몰락에 기여한 추가적인 이유로서 오스트리아의 반유대주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애가의 경우 오랜 역사의 끝에 와서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져 있습니다.

애가는 포로 기간인 기원전 586년에서 538년 사이에 기록되었으며 아마도 포로 초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용된 히브리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포로 이전 책과 포로 이후 책 사이에 아주 깔끔하게 들어맞습니다. 유배 이후의 형태로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지만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그것은 그것이 말하는 그 시대에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초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은 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제국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시대와는 거리가 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 몰락하게 된 이유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육교였다는 지리적 기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두 세력, 즉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두 강대국 사이에 충돌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은 육교를 놓고 싸우곤 했습니다.

고래가 몸부림치면 새우 등이 부러진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둘러싸고 싸웠는데, 한국은 그 중간에서 패했다. 그리고 이 육교에 관한 한, 북쪽의 시리아와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은 고래와 큰 물고기가 싸우면 새우의 등이 부러진다는 속담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8세기에 일어난 일은 북메소포타미아의 앗시리아가 서쪽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전에는 레바논을 습격하고 그곳의 사원과 훌륭한 건물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45년에는 고대 세계의 나폴레옹인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라는 새로운 아시리아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리아와 현재의 두 왕국인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포함하는 육교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제국의 일부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세기는 그 사실을 매우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식민지와 종속국에서는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왕국에서도 그랬고 남왕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730년대에는 시리아와 북왕국이 앗수르의 위협성을 깨닫게 된 소위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군사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군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수가 크더라도 유다의 군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반앗시리아 연합에 가담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산간 지역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유다가 패할 것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했나요? 유다의 아하스 왕이 대작을 했으나 말하자면 그가 디글랏 빌레셀에게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청했기 때문에 그 발을 팔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앗시리아인들이 와서 시리아를 정복하고 그것을 속주로 만들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마찬가지였으며 유다는 가신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큰 정치적 이유, 좋은 도덕적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왕국. 그래서 그것은 잃어버렸고, 아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역의 정신이 있었고 이집트를 바라보면 아마도 이집트가 우리를 도울 것이고 이집트가 우리를 도울 것이고 그래서 이집트와 동맹이 맺어질 것입니다.

앗수르 제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되었고,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공격합니다. 597년에 유다가 처음으로 멸망하고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들이 바빌론으로 추방되었으며, 586년에 유다가 다시 멸망하고 두 번째 포로가 있었습니다. 애가는 586년 이후, 유다의 멸망 이후,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성전이 파괴됨을 의미하며, 솔로몬 성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위대한 전통도 상실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던 왕정, 다윗 왕정의 종말을 의미하므로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속국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한 속주에 불과한 유다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유배되었지만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남았고, 남겨진 사람들이 애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순전히 역사적 현상으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신학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이 관심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에는 어떤 곳인가요?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모든 끔찍한 세부사항에 대한 세속적인 설명을 발견합니다. 열왕기하 24, 20장, 예루살렘과 유다가 여호와를 크게 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는 단지 역사적 현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다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사이의 관계,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서사적 역사의 붕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 율법의 언약적 기준을 버리고 포로 이전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진 두 가지 반역이 일어났고, 느부갓네살 왕에 반역하는 역사적 멸망이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학적 반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 뒤에 계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하고 예레미야를 사로잡는 야훼의 도구였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끝에서 매우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 서사적 역사에 대한 반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이전 선지자들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애가가 어휘에서도 그들이 말한 내용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포로 이전 선지자들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북왕국, 그 다음에는 남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연이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가는 구약 신학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접한 문학적 전통을 선택하고 싶어합니다. 이제 그 문화에서 애가의 위치가 무엇인지 물어봅시다. 글쎄요, 이스라엘은 지중해 지역에 있던 민족 중 하나였고 그들은 우리 북유럽인들과 그들 후손들의 뻗뻗한 윗입술에 그들의 마음을 소매에 대고 매우 많이 착용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표현력이 풍부했고 외적으로는 실증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서는 사람들이 늘 신나서 맘마미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부 이탈리아인들은 윗입술이 훨씬 더 뻗뻗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치,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은 남부 이탈리아와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슬픔과 애가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도는 행동의 슬픔을 반영하며 이는 고대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애도의식과 애도의 노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낯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마도 애도와 애도의 전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덜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영국에서 자랐고 1947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외에도 거쳐야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집 앞 창문의 커튼은 모두 닫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사용한다면 전등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소매에 검은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복 넥타이가 아닌 검은 넥타이를 오랫동안 매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슬픔에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슬픔으로 인해 당혹스러워합니다. 웃으라, 온 세상이 당신과 함께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울고, 당신은 혼자 울어요.

제 생각에 그것은 오늘날 서구 문명에서는 비극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는 슬픔 때, 애통할 때, 몹시 화가 났을 때 행하는 정해진 의식에 참여하는 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애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례 애도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속적인 애도였습니다. 누군가가 죽었을 때, 당신은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적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상실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 아주 긴 예가 사무엘하 1장에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슬퍼합니다. 그는 아직도 그 왕에 대한 충성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왕세자이자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에 대해 한탄합니다. 사무엘하 1장 후반부에는 이런 긴 장례 애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애가, 애가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키나(kinah)는 애가를 뜻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영어 용어 애도는 동일한 히브리어 용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장례식의 애도를 따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장례식 애도인 키나(kinah)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순전히 인간 수준에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렴구로 표시됩니다:
강자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리고 그 강력한 인물은 물론 이 위대한 군사 영웅인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라는 단어는 매우 표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어 느낌표는 실제로 그것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비명이나 비명과 같습니다. 에잇, 에잇 입니다. 이 애도를 세 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 영어 번역에서는 나오지
않는 고뇌를 표현합니다. 나는 A Liturgy of 슬픔이라는 애도에 대한 논평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나는 내 자신의 번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애도할 때,
우리의 일반적인 표현에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약간 장황하고 서투르지만, 그 단어의 감정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비명이나 비명입니다.

에잇! 괜찮은.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9장에도 이러한
세속적인 인간의 애도에 대한 언급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9장, 17~22절. "고려하여 애도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 능력 있는
여인들이 오도록 보내라.

“그들로 속히 우리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흐르게 하소서 이는 통곡의 노래가 시온에서 들리게
함이니이다. "우리는 얼마나 망가졌는가!" 그리고 그것은 eich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dirge is kinah, kinah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괜찮은. 흥미롭게도 여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성, 전문직 여성 계층이 있었고
그들의 임무는 애도에 참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족을 이끌고,
그들을 애도하고 격려하고, 애도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가서에도 같은 역할을 맡은 여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8절은 다가오는 왕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내 형제라, 슬프다 내 자매라 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르되 슬프다 주여 또는 슬프다 대왕이로다 하리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아아'라는 단어를 삭제했지만 그것이 애도의 표시로 인식됩니다. 그 단어는 더 이상 eich 이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명이나 비명이 아닙니다.

나는 몇 년 전 이를 동안 관찰하기 위해 병원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밤새도록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 맞은편 방에는 죽어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인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트롤리가 굴러가는 소리 등이 있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소거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분명히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 간호사들은 급히 그녀를 병동 바깥 대기실로 데리고 나갔지만, 이 통곡에 병동 전체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 호이, 이것은 단어입니다, 호이! 그리고 그것은 비명이나 비명이 아니라 통곡입니다. 통곡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우 건전한 표현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 이 세속적인 장례 애도는 다른 재난에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애가에 세속적인 애도가 나온다면 누가 죽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아니, 재난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26장에서 우리는 애곡, 즉 큰 도시 두로에 대한 예언적 애곡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무너질 것입니다.

두로 에 대한 애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 그래서 두로 의 멸망 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애도가 있습니다. 오 유명한 도시여, 당신이 어떻게 바다에서 사라졌는가.

이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애도입니다. 바다의 해안지대가 당신의 지나침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그 단어, 그들은 애곡할 것입니다.

키나입니다. 복수형 키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애가의 제목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재난, 즉 도시의 몰락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애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 자체에 이르면 1장의 시작 부분, 2장의 시작 부분, 4장의 시작 부분에서 비명이나 비명이 반복되지만 더 이상 단음절로 반복되지 않는 것을 발견 합니다 . 두 음절로 인해 더욱 끔찍해집니다. 에잇 그녀! 에잇 그녀! 에잇 그녀! 그래서 첫 번째 장, 즉 1장, 2장, 4장의 첫 번째 단어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세속적인 장례식에 대한 말로 표현하는 것 외에도 애도는 다른 많은 재난에도 확대되었습니다. 다른 애도 의식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에서 우리는 욥의 위로자들이 2장의 끝 부분에 와서 소리를 높여 크게 울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먼지를 머리 위로 날렸습니다.

그들이 칠일 낮과 칠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에게 한마디도 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고난이 심함을 보았음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실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에스라가 9장의 한 지점에서 괴로워하며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내 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놀라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다 내 주위로 모여들었고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놀라서 앉아 있었느니라. 저녁 제사 때에 내가 단식하다가 일어나 내 옷과 겹옷이 찢어진 채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펴고 이르되 그가 기도하시니라. 이 아침 의식이 이제 기도의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애도에서 기도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여, 여기에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여러 날 애통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두 마지막 사례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세속적인 영역이 아닌 기도의 영역, 즉 종교적인 영역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애도에서는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결합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보면 시편의 애가에 아침 예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를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침의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편 69편 10절과 11절에서 나는 금식하여 내 영혼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나는 베옷을 옷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35편 13절과 14절에도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나는 금식으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친구나 형제를 슬퍼하듯이 머리를 가슴에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절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애도하는 것처럼 나갔습니다.

이것은 욕의 위안자들과 마찬가지로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특별한 애도가 아니라 애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애가에서도 이런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5편 25절에서 슬픔의 표현으로 우리는 흠에 떨어지고 우리 몸은 땅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땅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땅바닥에 앉는 것,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애도의 육체적인 자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가서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가를 훑어보면서 여기저기 골라내고 1장과 1절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가 앓고, 도시가 앓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애도 행동을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애도의 방식,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3절에서는 유다가 열방 가운데 살고 있으며 문자 그대로 열방 가운데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저 사람들도 슬퍼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에는 밤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음, 울음의 폭발, 이것 역시 애도의 몸짓입니다. 17절에서 시온이 손을 뻗지만 그녀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스처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그 애도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도의 신체적 표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9번째, 20번째에서 우리는 보라, 오 주님,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내 배가 흔들리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비틀어집니다. 그리고 이 슬픔에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어서 복통, 즉 슬픔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2시 10분에 우리는 딸 시온의 장로들이 말없이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애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들은 머리에 흙을 바르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애도입니다. 그리고 2시 11분, 울음으로 눈이 굳고 배가 뒤틀리고 담즙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 슬픔에는 울음과 정신적 영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압도되어 몸 자체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28에서 우리는 앉아 있는 것, 조용히 혼자 앉아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48에서 51 사이에서 우리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강처럼 흐릅니다. 내 눈은 쉬지 않고, 쉬지 않고 흐른다.

그리고 또 이런 애도의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명이 얼마나 실증적인지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문화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흥미롭게 연결됩니다. 애가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의인화와 뒤에 남겨진 예루살렘, 고통받는 예루살렘과 결합됩니다. 여성으로서 매우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을 언제 보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도시 애도에는 이에 대한 흥미로운 예시와 그 유사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도시가 애도하고, 시민들도 애도하고, 도시의 여신도 애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곳곳에서 파괴되었으며 여기저기에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신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 도시를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상실을 애도하는 신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도시의 여신입니다. 애가와는 일종의 유사점이 있지만 이제는 시온 자체의 의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도시, 즉 도시의 의인화이자 침략군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에 닥친 고통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시온이 회중의 의인화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에게 말하고, 시온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시온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온은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회중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유사점을 발견하지만 애가에 영향을 준 메소포타미아의 더 넓은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애도 뒤에 숨겨진 전통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하고 싶습니다. 나는 또한 슬픔과 슬픔의 심리학, 그리고 그것이 애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만 두겠습니다.